

# LCD, 삼성 · LG 매출액 세계 1위

한국 44.4%에 타이완 42.6% ... 출하량은 타이완이 44.4%로 선두

2006년 세계 LCD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등 국내기업들이 매출 점유율 1위를 지킨 것으로 추장된다.

그러나 타이완기업들이 이미 2005년 출하량에서 한국을 추월한데 이어 매출에서도 간격을 좁히며 바짝 추격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 등에 따르면, 2006년 세계 LCD 시장점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한국이 44.4%로 타이완의 42.6%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LCD 생산기업들은 2006년 1/4분기 44.2%, 2/4분기 47.5%, 3/4분기 46.6%의 시장점유율을 각각 기록했으며, 타이완은 1/4분기 43.2%, 2/4분기 40.8%, 3/4분기 42.7%의 점유율로 바짝 추격해왔다.

특히, 한국은 2004년 43.6%, 2005년 44.1%에서 2006년 44.4%로 점유율이 소폭 상승한데 그친 반면 타이완은 2004년 36.5%, 2005년 40.3%, 2006년 42.6%로 상승하면서 한국과의 간격을 좁히고 있다.

타이완은 LCD 출하량 기준으로 2005년 44.4%의 시장점유율로 한국(44.2%)을 제치고 처음으로 선두에 오른데 이어 2006년에도 1/4분기 47.5%, 2/4분기 48.0%, 3/4분기 49.0%로 한국의 1/4분기 41.1%, 2/4분기 41.3%, 3/4분기 41.4%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4년 18.1%, 2005년 11.9%에서 2006년 9.4%로 하락하며 3위를 지켰으며, 중국은 2004년 1.9%에서 2005년 3.8%, 2006년 3.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기업별 매출 점유율은 2006년 3/4분기 기준 삼성전자 32억5999만달러, LG필립스LCD 27억8000만달러, 타이완의 AUO 20억6000만달러, CMO 15억6000만달러, 출하량은 LG필립스LCD 1517만장, 삼성전자 1478만장, AUO 1260만장, CMO 890만장 순으로 여전히 한국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2006년 1/4분기에는 CMO 15.3%, AUO 12.2%로, 삼성전자 4.1%, LG필립스LCD 2.1%를 크게 앞서는 듯 했으나 삼성전자는 2/4분기 2.6%, 3/4분기 5.3%, 4/4분기 9.6%로 개선된 반면 AUO는 2/4분기 2.2%, 3/4분기 2.9%로 떨어지고, CMO는 2/4분기 1.2%에서 3/4분기 -1.8%로 악화되는 등 삼성전자를 뛰어넘지 못했다.

하지만, LG필립스LCD는 영업이익률이 2/4분기 -16.1%, 3/4분기 -13.8%, 4/4분기 -6%로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29>